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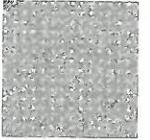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57호 2023년 7월 23일(가해)

연중 제16주일(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페이지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예수성심 | 이남규 루카, 390x50cm, 달드베르 기법, 1978년, 전주교구 노송동성당

입당송 |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 지혜 12,13.16-19

화답송 |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 로마 8,26-27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 13,24-43 <또는 13,24-30>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대는 주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전달자입니다!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 | 사목국 노인사목팀 담당

오늘은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교황님은 이날을 기념하고자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루카 1,50)라는 말씀을 주제 성구로 뽑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에 실려있습니다. ‘마니피캣’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성모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하느님께 바친 찬미가입니다.

교황님은 이 주제 성구를 통해 잊힌 존재로, 실의에 빠진 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시는 분이시며, 어느 순간에도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실의에 빠진 노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당부하십니다.

한편 교황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사를 받고,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내면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고 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덮쳐오는 파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빼앗겨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버린 베드로와 같이, 버림받은 듯한 부정적인 느낌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또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느님으

로 채워진 충만한 내면의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도 써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복음 말씀 중 ‘밭’에 해당하는 어린 손자녀들에게 신앙이라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조부모 여러분! 손자녀들에게 신앙이라는 ‘좋은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할지 걱정하고 계시는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인자하고 자비로운 성정을 유지하고 따뜻한 미소로 손자녀를 바라보기, 손자녀들에게 성호 긋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함께 정성스럽게 바치기, 식사 전후기도를 꼬박꼬박 바치기, 본당 성모상 앞에서 초를 봉헌하며 함께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기, 늘 묵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묵주기도 드리는 모습을 손자녀들에게 자주 보이기, 고사리 같은 손자녀의 손을 잡고 주일 미사에 함께 다녀오고,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기와 같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로 손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아주 미소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마태 13,32) 정도로 커집니다. 여러분 손자녀들의 신앙도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커갈 것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마태 13,32)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지만, 수년간의 경험과 성장으로 지혜롭고 성숙하게 영근 노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지혜를 가지에 앉아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들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무로 자라고 싶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의 추상화된 형태들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름답게 빛나며 타인이 자신의 가지에 깃들여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지요.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 ‘진짜’가 나타났다



김유정 발레리아 | 노래하는 배우

저는 올해 3월, 사순 시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객 모집이 끝나고 특방을 만들어 54일 기도까지 함께 바치고, 드디어 3월 14일에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여러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성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지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선택받은 땅임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지에 대한 설명을 보니 그 당시의 장소로 ‘추정’된다는 말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승천 경당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발을 디뎠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돌이 있었고, 정교회에서 관리하던 성모님 무덤 경당도 가묘로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당 안 무덤도 가묘라고 명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막상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성지를 순례할 때, 제 마음은 벽차기보다는 ‘추정’된다는 성당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성지 건물보다는 오히려 갈릴래아 호수와 유다 광야를 걸을 때 눈물나게 행복했습니다. 여긴 자연이니까 인간의 손길이 그 형상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이 호수나 광야가 스스로 저 멀리 옮겨갈 일도 없으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일 거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라 생각되는 성지에서만 행복해하는 선택적이고도 우매한 순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날이 되었고, 우리 순례팀은 운이 좋게도 주님 무덤 성당에 자리한 무덤 안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33명의 순례객이 옹기종기 모여 미사를 드리기를 시작했고 드디어 성체 분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성체를

하나하나씩 나눠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고요히 외치는데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도 채 넘지 않는 작은 성체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게 진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보다 더 진짜다운 진짜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진짜’가 매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국에,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계시고 심지어 하루에 몇 번이나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0미터만 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사랑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갈게.’



그리로부터 오시리라 믿나이다!

파루시아(2)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주님께서 어떤 ‘때’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때’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파루시아를 ‘향한’ 삶이 될까요?

아마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7,29,31)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물리적 시간, 혹은 연대기적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Χρόνος)’가 아니라 ‘카이로스(Καιρός)’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는 질적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듣는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1시간이지만, 강의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 내가 체험한 시간은 5시간의, 혹은 무한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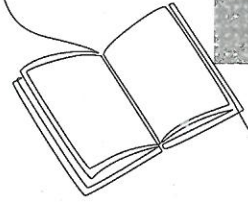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 사용한 그리스어는 ‘쉬스텔로(συστέλλω)’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접는다’는 뜻으로, ‘붙어진다’는 파생적 의미가 있습니다. 깃발을 접어서 작게 만드는 것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파루시아가 일어나면, 곧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그때까지 짜던 나의 인생이라는 직물이 ‘접혀’ 주님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의 삶 전체가 더 이상 물리적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은 영원 안에서 높이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시간은 영원히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는 그냥 우두커니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향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 봉헌함으로써 나의 이 물리적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는 이렇게 매 순간이 파루시아를 향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파루시아는 다가올 시간, 크로노스에 일어날 일,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건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삶의 매 순간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느님 안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도록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파루시아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의 현존’,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2천 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이, 그분의 권능, 선과 정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오심은 ‘영광중에 오심’이고, 하느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며, 구원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파루시아는 기쁨이고 설렘이며 희망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안티오키아 교회와 사도들의 삶 (사도 11,19-12,23)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 박해는 교회의 몰락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압니다. 이 확장의 결과는 사마리아를 넘어 안티오키아라는 곳까지 확대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 중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위해 바르나바라는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나바는 회심한 사울, 바오로를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로 데리고 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쓰인 경위를 알려줍니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1,26)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 교회는 더욱 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이후,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를 배출합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제베대오의 아들로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을 맺었던 사도입니다.(루카 8,51; 9,28) 또한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에서 헤로데라는 임금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로데가 아닙니다. 그는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로 헤로데 대왕의 손자이며, 헤로데 안티파스의 조카입니

다. 이 헤로데는 로마에서 성장했으며, 기원후 41~44년에 팔레스티나 거의 전역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로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고 싶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투옥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는 주님의 천사가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12,12)으로 갑니다. 여기서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은 바르나바의 사촌이며,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바오로의 마지막 로마 투옥 생활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베드로와도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1베 5,13) 이렇게 베드로는 헤로데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헤로데는 주님의 천사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박해와 온갖 고난은 성령을 통한 복음 선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도록 만들 뿐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 50,20) 요셉은 형들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업적은 성령 안에서 바르나바와 바오로라는 인물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위원회가 전하는
WYD 특집

WYD 세계청년대회 안내서

7월 WYD 안내서 | 8월 WYD 현장 스케치 | 9월 WYD 후일담

홍보위원회 언론홍보팀



WYD Lisbon 2023
공식 페이지

오는 8월 1일(화)부터 6일(주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WYD(세계청년대회, World Youth Day, 이하 WYD리스본)가 개최됩니다. 이에 7·8·9월 총 세 번의 특집면을 통해 WYD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7월호는 'WYD 안내서'입니다. WYD의 유래·참가자·일정 등에 대한 소개를 담았습니다. 이어지는 8월호에서는 WYD 리스본의 현장 스케치를, 9월호에서는 후일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WYD의 시작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특별 희년을 폐막하며 전 세계 젊은이를 로마로 초대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WYD의 시초이고, 이때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말하신 '순례 십자가'는 WYD의 상징이 되어 지금은 리스본을 향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1985년, 교황님은 World Youth Day를 제정하십니다. 이날이 우리가 아는 '청소년 주일'과 '세계 젊은이의 날', '세계청년대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년 지내는 청소년 주일·세계 젊은이의 날과 2~3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청년대회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연속되는 여정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하신 올해 WYD

리스본의 주제 성구는 **"마리아는 일어나서 둘러 길을 떠났다."**(루카 1,39)입니다. WYD리스본의 로고에는 이 주제 성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기의 3가지 색으로 표현된 로고에는 '십자가'와 '젊은이 마리아'의 옆모습, '길'의 형상과 '목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WYD에는 가장 먼저 교황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순례자'라 불리는, 교황님의 초대에 응해 모인 젊은이들이 함께 합니다. '순례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WYD는 단순히 대규모 행사가 아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순례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동반자'로 함께하는 사제·수도자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교님들도 참석합니다. 특히 WYD 일정에서, 3일간 진행되는 '주교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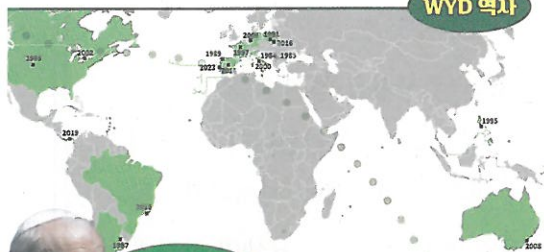
하는 교리교육'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WYD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현장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미디어 종사자들도 참여합니다.

WYD의 일정은 크게 교구대회와 본대회 2가지로 나뉩니다. 교구대회는 본대회 전, 개최 교구를 제외한 개최국의 다른 교구들이 젊은이들을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이 기간 중 젊은이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지역사회의 환대를 체험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

본대회 일정은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전 교리교육과 오후 문화 행사, 그리고 저녁 메인 행사입니다. 교리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은 교회의 진리를 배우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교회에 전달합니다. 또한 오후에는 문화·종교·스포츠 행사 프로그램과 기관·단체의 부스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메인 행사는 개막 미사와 교황님 환영 행사,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철야 기도·파견 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아침 파견 미사 때까지 이어지는 철야 기도는 WYD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WYD리스본의 현장 소식은 서울대교구 인스타그램(@seoul.catholic)과 페이스북(facebook.com/commu.seoul) 공식 계정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YD 역사



1984년

"젊은이들이여 로마로 오세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순례 십자가가 포르투갈 산타레오구에 들어서면 세계청년대회 십자가를 청년들이 옮기고 있다

미사 전례로 초대하는 '입당송' (Introitus)



연중 제16주일 입당송〔Graduale Triplex(그라두알레 트리플렉스) 307〕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입당송’은 ‘Antiphona ad introitum(안티포나 앳 인트로이툼)’ 즉 ‘입당 행렬 때 부르는 안티폰’입니다. 5세기 이래 로마에서 일곱 교회를 돌면서 드리던 교황 순회 미사(Station Mass)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아마도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 때부터 전례에 도입된 듯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47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올 때 입당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입당송의 기능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당송을 노래함으로써 미사 거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미사 전례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입당송을 함께 노래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굳게 합니다.

셋째, 입당송은 특히 그날 전례의 본질적 신비를 드러냅니다.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에는 해당 전례의 고유한 의미를,

연중 시기에는 구원 신비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노래합니다. 따라서 입당송 가사를 시작하는 단어로 해당 주일 혹은 미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림 제3주일을 ‘가우데테 주일’(Gaudete, “기뻐하십시오”),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푸에르 나투스 에스트 미사’(Puer natus est,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순 제4주일을 ‘래타레 주일’(Laetare, “기뻐하십시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비리 갈릴라이 대축일’(Viri Galilai, “갈릴라이 사람들아”),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스피리투스 도미니 대축일’(Spiritus Domini, “주님의 성령께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넷째, 입당송은 일반적으로 사제와 봉사자들을 행렬에 참여시키며, 행렬 동반 성가로서 비교적 쉽고 단순한 선율로 노래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48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입당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제가 직접 낭송한다. 이 경우 사제는 입당송을 시작 예식에서 하는 권고의 말로

삼을 수 있다.”

오늘 연중 제16주일 미사 전례의 입당송은 원래 시편 53(54)편 6절과 7절을 노래하는데, 현재는 6절과 8절을 기도합니다.

“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저의 보호자이신 주님)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종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봉사자들



청년부
교구회장단
주보편집부
전례연구부
번역부
밴드부
홍보부
서울선택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입니다. 청년부는 서울대교구 각 본당 및 지구 청년 공동체의 활성화를 돕고 청년들의 신앙적·영성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청년부 내에는 총 7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올해 다시 새롭게 출범한 교구회장단, 주보편집부, 전례연구부(아뉴스데이), 번역부(예로니모) 밴드부(유빌라떼), 홍보부, 서울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도구로 기꺼이 쓰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국 청년부
홈페이지 큐알(QR)

청소년국 청년부

교구 회장단은 서울대교구 각 본당 및 지구 청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보편집부는 매주 청년들의 시선에 맞춘 청년주보를 발행합니다. 전례연구부는 전례학교를 통해 각 본당의 전례 담당 청년 봉사자들을 교육합니다. 번역부는 교황님 말씀 등의 번역을 통해 주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앞장서며, 밴드부 유빌라떼는 성가로 주님을 찬미합니다. 지구 혹은 본당 미사나 행사에 참여하여 음악으로 그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홍보부는 유튜브 영상, 청년부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주님을 전합니다. 선택은 젊은이들이 대화를 통해 자아를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며 서울선택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진행합니다. 올해는 9월과 11월 서울주보의 한 면을 청년주보 편집부가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보 편집부를 비롯한 청년부의 활동에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9월에 또 만나요!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의 이모저모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는 '클래식 음악'에 재능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설립한 학력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여러분! 노비파스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경오세요. 안보시면 후회하실 걸요? 큐알(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세요!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현장체험학습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5월의 어느 날,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전교생이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소식과 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눌러 오세요. 큐알(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세요!



오늘(7월 23일)은 연중 제16주일(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도좌 내사원은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7월 25일 김병호 베네딕토 신부(64세)
- 1988년 7월 29일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77세)
- 1990년 7월 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 2011년 7월 27일 김상우 프란치스코 신부(42세)
- 2019년 7월 29일 한정관 바오로 신부(76세)

교구청 알림

캘러리1898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하계 휴관: 7월22일(토)~8월8일(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때: 7월27일(목) 15시, 명동대성당
 주례: 주교단 공동 집전 / 문의: 010-8709-2346
 공동주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8월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부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본당 찾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1378차 미사 7월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담: 함흥교구 계림 분당, 회령 분당, 나진옹기 분당 /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때: 1379차 미사 8월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담: 서울대교구 연안 분당, 개성 분당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7월2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2023 '가톨릭 시니어 지혜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 시니어들이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 안에서 신앙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더욱 지혜롭게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시니어 지혜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55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70명(선착순 마감) / 문의: 02)727-2385, 6

1주	9월4일(월) 10시30분~12시30분	뇌졸중: 전조증상과 예방법
2주	9월11일(월) 10시30분~12시30분	100세 시대 치매 바로 알기!
3주	9월18일(월) 10시30분~12시30분	3대 대사성 질환과 골다공증
4주	9월25일(월) 10시30분~12시30분	건강한 노년 생활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5만원
 신청기간: 8월20일(일)까지 접수(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전대사 조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3년 7월 23일)'에

■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영성체를 하고

☑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성체성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세계청년대회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7월27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주제: <평화! 그 끝까지 않은 이야기 -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야.">(시편 34,15)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경찰사목위원회 / 문의: 02)742-9471

인준단체 알림

모임

새로운 복음화 학교 피정(CPE)

대상: 모든 신자(자녀 동반가능) / 문의: 010-9953-1714
 때, 곳: 8월10일(목)~15일(화), 꽃동네 영성원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8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평화를 위한 토요일기도회 및 미사

때, 곳: 408차 8월5일·409차 8월12일·410차 8월19일·411차 8월26일 매주(토) 15시·16시(미사), 참회와 속죄의 성당(파주) / 문의: 031)941-2766
 주최: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우이동 명상의 집 8월 피정 / 문의: 02)990-1004

대제이 영성수련 피정	8월10일~13일, 8월24일~27일(3박4일)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 무료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월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8월26일~28일, 9월3일~5일
여름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성지순례 (추차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11월4일~7일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름담 청년 교회문헌통독 모임(노름담 수녀회)

대상: 39세 이하 미혼 여성 / 문의: 010-3930-6730
 때, 곳: 8월9일~10월25일 매주(수) 19시30분~20시30분(1시간), 노름담 교육관(복촌로54)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 I	7월28일(금)~30일(일)
효소단식	8월3일(목)~6일(일)
성경완독	8월11일(금)~19일(토), 10월13일(금)~21일(토)
하느님, 바람, 나(렐링 피정)	9월8일(금)~10일(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8월18일(금)~20일(일)	민병식 신부(서울대교구)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가정선교회 8월 피정-미사(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8월2일(수) 12시30분~17시 강사: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산신 첫도 미사	8월5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손무진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8월19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양창우 신부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수, 손현희 팀장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피정

때: 9월8일(금) 18시~10일(일) 16시40분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이순경 신부(예수회)
 회비: 20만원 / 계좌: 농협 301-0197-3172-01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 찬양 1일 피정

때, 곳: 8월17일(목) 10시~16시, 삼동역 본회
 회비: 3만원(중식 제공, 장애인 무료)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교구별 성지순례·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때: 9월9일~11일(대구대교구 17곳), 수도원 외 10월21일~23일(안동교구·원주교구)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8월27일~29일·9월1일~3일·9월5일~7일·9월8일~10일·9월16일~19일(추차도)·10월1일~3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포함) 8월1일~3일·8월5일~8일·8월11일~14일·8월19일~21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19시~22시(주5일 수업 예정),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6240-3216 김은지 선생

예수회 특별강좌(예수회센터)

강사: 배철현 교수 / 강의 주제: 소명, 희생, 각성-마크 사갈의 '창세기 12-36장' 묵상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현장 강의	9월6일~11월8일 매주(수) 14시~16시 (10주 과정), 예수회센터 3층 성당
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하반기 금요영성특강

때: 9월8일~12월15일 (금) 16시~17시(총10회)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순교자성월	원종현 신부, 이형전 신부, 백종원 신부
위령성월	이서원 소장, 박승찬 교수, 이동숙 교수, 이영숙 수녀
대림시기	김경희 수녀, 조경자 수녀, 김영선 수녀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하반기)

문의(접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대면반	9월5일~2024년 2월18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Zoom반	9월7일~2024년 2월18일 매주(목) 20시~22시
청년반	매일 넷째주(일) 10시~16시(10회), 가톨릭회관 311호 / 매월 접수 가능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직강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8월31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영성센터 A201호 / 010-9590-4560, 010-5236-5493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모집
 접수: 7월19일(수)~8월2일(수) / 전형일: 8월5일(토)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문의: 02)705-8678(www.soganggame.ac.kr)

모집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합창단이 84회 정기공연(가을, 라흐마니노프의 밤생기도)을 함께할 30~40대 단원을 찾습니다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 문의: 010-2778-2704 총무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010-6814-6010
 활동: (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8월20일(일) 오후 5시, 명동대성당
 준비: 지원서 및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네이버 검색-로고스합창단-입단문의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7월28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살레시오와 꿈 윌레미사 / 문의: 02)828-3522

때: 7월24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윌레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넌(논)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26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윌레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7월31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윌레미사추모미사

윌레미사 / 7월27일(목)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오기선요셉신부 33주기 추모미사
 집전: 김경수 신부,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7월29일(토) 낮 12시, 용인천주교묘지 김수환추기경 기념경당 및 성직자묘지(031-334-0807) / 무료버스 예약
 중식 접수: 010-8982-9819 명동대성당 출발, 010-8936-2331 절두산 출발·010-5202-5145 대방동 9시30분 출발

웅기장학회 윌레미사

때, 곳: 7월2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박태민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고준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2023년 가톨릭성가대 코랄콘서트 예선 접수

2023 가톨릭뮤직페스타 성가경연대회 예선 접수
 대상: 전국 성당 성가대 / 본선: 11월, 최양업홀
 예선: 가톨릭성가책 1곡 음원 접수 / 8월20일까지 접수
 문의(접수): 010-5245-2848 심준보(사무국)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직원 모집

대상: 신자로 성실하신 분, 사무원 1명(계약직)
 업무: 일반 사무, 회계 경리, 후원 관리, 도서 보급, 행사 보조 등 / 서류: 입사지원서(fatimaseoul.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접수 / 이메일(seoulfatima@gmail.com) 문의

한국틴스타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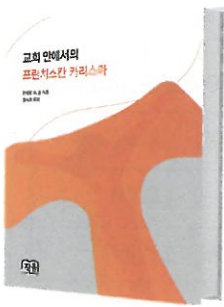
분야: 사무 및 경리 담당 / 문의: 02)727-2358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한국틴스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한국틴스타) 및 이메일(kteenster@hanmail.net)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교회 안에서의 프란치스칸 카리스마

안셀름 W. 롬 지음
도서출판 작음 | 201쪽 | 1만2천원
문의: 02)793-2070

안셀름 W. 롬 수사는 이 책을 통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정립되고 발전하여 성숙하는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오늘날에도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성 프란치스코의 응답과 재현에 참여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한다.



신간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 모음, 소전기

바노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도서출판 작음 | 495쪽 | 1만5천원
문의: 02)793-2070

보나벤투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전하며,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원과 목적과 중추점을 알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프란치스코'라는 영양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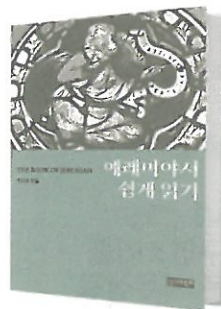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윌리엄 A. 배리 지음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170쪽
1만원 | 문의: 02)3276-7799

이나시오 영성을 20세기에 재조명하는 데 크게 공헌한 윌리엄 배리 신부의 책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식별, 기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조로 풀어놓아 하느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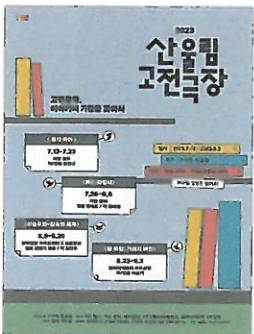


신간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

안소근 지음
성서와함께 | 216쪽 | 1만5천원
문의: 02)822-0125

예레미야서의 핵심 본문을 충실히 해설하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꼭 필요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소개해 준다. 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를 짚어 주며, 예레미야서에 다가 가려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공연

2023 산울림 고전극장

입장권: 전석 3만원 / 문의: 02)334-591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anwoolim.kr) 참조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40% 할인

<2023 산울림 고전극장 - 고전문학,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서>가 7월 12일~9월 3일까지(화요일 제외) 소극장 산울림에서 선보인다. 2023년 산울림 고전극장은 '고전문학, 이야기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신화, 우화, 동화, 전통 설화 등 스토리텔링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음악회

2023 국립합창단 여름합창축제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기획공연 <2023 여름합창축제>가 8월 30일(수), 31일(목)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세기 독일의 대표적 작곡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와 더불어, 류재준의 <장엄미사곡>을 세계초연으로 선보인다.

제229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여성구역회 기금마련을 위한 오이지 판매

일시 : 7월 22일(토)~23일(주일)

가격 : 8개 10,000원

◎ 연희동성당 복사캠프

일시 : 7월 26일(수)~27일(목)

장소 : 용인 에버랜드

대상 : 연희동성당 복사단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4일(금)~6일(주일)

장소 : 어름치 캠프학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회비 : 80,000원

접수 : 신청서 혹은 인스타그램 DM

접수마감 : 7월 23일(주일)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주일학교 캠프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대여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일시 : 8월 11일(금)~13일(주일) 2박 3일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유치부 ~ 6학년

회비 : 인당 50,000원

문의 : 이정화 교사 교감 (010-2737-4091)

※ 주일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년 여름캠프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접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학부생 50,000원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그룹원 모집

23년 가을학기 소그룹 나눔을 맡아주실

봉사자와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 8월 넷째주까지

대상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중

해당 과정 신청 청년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여성울드레아

일시 : 7월 25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일시 : 7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8일(화) ~ 11월 16일(목)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사전모임 : 7월 30일(주일) 청년미사 후 304호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성당시설 이용 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체회합 후에는 전등, 선풍기, 에어컨이 꺼졌는지 확인해주시고 성당의 전기, 수도 등 모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바람에 약한 분들은 에어컨 쪽을 피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7. 1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6	786 (38%)	751 (36.4%)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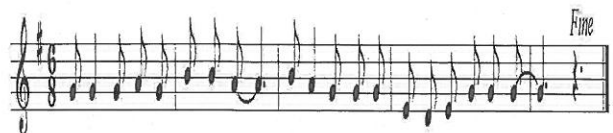
◎ 감사헌금 (7월 10일~16일)

박옥연	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황금출	오만원	홍동수	일십만원
김태홍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전홍선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5주일)

교무금	7,670,000원
주일헌금	5,684,200원

입당	21	봉헌	219, 220, 510	성체	160, 154, 497	파견	31
----	----	----	---------------	----	---------------	----	----



주님당신은 어질고 -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